

제 140호 학습 사회

학부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강의실에는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른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모임을 이차집단(secondary group)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모였다 흩어질 뿐 어떤 지속적이고 끈끈한 연대감이나, 우정, 동질감 등을 나누지 못하는 냉정하고 타산적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강의실에서는 교수님 대 전체 학생이라는 직선적 커뮤니케이션이 고정패턴으로 자리 잡기 십상입니다. 학생들끼리는 서로 옆에 앉아도 한 학기가 다가도록 서로 이름도 모르고 학과도 모르고 그저 강의실에 "홀로 왔다 홀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모래알 같이 흩어진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시기도 벅차실 뿐 아니라 하나의 불특정 다수로 뭉뚱그려 대하시기도 거부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강의실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고 인간미가 감도는 배움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교수님이 한번 실행해보고 나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학기 1/3이나 1/2쯤 지났을 때 어느 날 "학생들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있나요?" 하고 느닷없는 질문을 해 보십시오. 약간 썰렁할지도 모르지만 이어서, "서로 일주일에 몇 번씩 보면서 이름도 모르고 헤어지지 말고 이 기회에 모르는 학생과 5분 동안 서로 통성명해 보라"고 시간을 줍니다. 원래 수업보다 좀 색다른 활동을 하면 졸던 학생도 눈이 반짝이게 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힐끗 보는 것 같아도 다른 학생의 옷차림, 자세, 수업 태도 등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고 나면 우선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학생들끼리도 서로 자극제가 되고 서로 토론도 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다채널로 열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프로젝트를 주거나 수업 중 토의를 할 때에 분위기가 상당히 협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교수님의 질문에 틀리면 다른 학생들한테 창피할까보아 꿀 먹은 벙어리같이 눈만 꿈뻑거리며 앉아 있던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의 대답에 관심을 기울이고 용기 내어 답을 말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교실 분위기가 사무적인 이차집단에서 공동체적인 일차집단(primary group) 쪽으로 바뀌면 교수님의 농담이나 실수에도 모두가 너그러워지게 되고 배움의 경험을 교실 안에서 뿐 아니라 교실 밖으로까지 연장하는 효과도 기대해보실 만 합니다.

<<잔소리 코너>>

정보화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네트웍입니다. 수업 시간 동안 지적 네트워킹을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만 형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사회(learning community)는 바로 이러한 일차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